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현황과 과제

이 용 규 | 중앙대 학생지원처장

### I. 서론

전 해보다는 줄었지만 2001년도에도 70만 명이 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수학능력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생의 감소에 따라 앞으로 희망하는 학생 거의 모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대학 진학에만 전력을 기울이지 대학에서의 생활, 나아가 대학 졸업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대학 진학에만 집중한 나머지 대학 졸업 이후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전공 선택조차도 등한 시하는 고등학생들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학부모 역시 '대학 진학'이라는 대 명제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학부모, 고교 교사 어느 누구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진학 이후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학 생활은 사회 생활의 직전 단계이므

로 대학 생활의 성공이 곧 사회 생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학 생활의 중요성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신입생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우선적으로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고교 시절까지의 학교 생활은 비교적 획일적이며 타율적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즉, 대학 신입생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공부하여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대학 신입생의 상당수는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제작한 '대학생활안내'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이 붙은 책자를 만들어 신입생들에게 배포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더군다나 타율에 의해 오랫동안 조율된 대학 신입생의 상당수는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이러한 홍보물의 이용조차 게을리 하

1) 일부 대학에서 "기회가 있으면 다른 대학으로 전학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상당수의 학생이 전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방 소재 대학은 물론 서울 소재 대학에서의 신입생 자퇴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대학 생활에의 적응 실패'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본부는 '대학생활안내'의 유용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책자의 발간을 중단하고 '대학생활안내' 책자의 내용을 단지 웹 페이지에만 등재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직접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직접 설명회 방식은 일반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신입생을 위한 대학 생활 안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복잡한 대학 내외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 없는 행사로 전락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안전사고는 신입생의 참석률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다.

많은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주체'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변화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이 신학기를 맞이하여 첫 번째 행하는 커다란 행사이다. 따라서 이 행사의 성공적 집행은 나머지 행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학을 구성하는 제 주체, 즉 대학본부, 교수 및 학생회가 합심하여 신입생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1월 하순경에 임의로 선 발한 22개 대학의 담당 직원과 전화 인터뷰를 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현황을 조사하였다.<sup>3)</sup> 조사 내용을 '행사 주체', '소요 비용의 총당 방안', '행사 장소 및 일정' 및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행사 주체 및 단위

행사 주체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총학생회로 구분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체에 따라 행사 단위는 결정되고 있다.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분리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대학은 11개이다.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공동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곳은 4개 대학이다. 대학본부가 학생회를 참여시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대학은 3개이며, 학생회가 주

2) 중앙대학교의 경우, '대학생활안내'의 책자가 신입생에 의해 읽혀지지 않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견하고, 2002년도부터 이 책자의 발간을 중단할 예정이며, 컴퓨터에 익숙한 신세대 신입생이 쉽게 대학 생활 안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학교 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생활 안내를 압축 정리한 내용을 인쇄물을 만들어 신입생들에게 배포되는 다이어리(diary)에 삽입할 예정이다. 3학년과 4학년에게 배포되는 다이어리에는 취업 관련 인쇄물을 속지로 만들어 삽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시도는 신입생이 대학 생활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제작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동덕여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양대, 강원대, 경남대, 경북대, 동아대, 순천향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명지전문대, 서일대, 신구대, 오산대이다.

관하는 대학도 2개교이다. 이외에도 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대학(1개 대학)도 있다. 또한 대학본부, 단과대학 그리고 학생회가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2개의 대학도 있다.

## 2. 소요 비용의 충당 방안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소요 비용 충액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대학본부가 주체가 되어 학내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은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에서 장소를 임차하여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대학이 일부 부담하고 신입생과 참여 재학생이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sup>4)</sup> 그러나 참가비 전액을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켜 신입생과 참여 재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대학도 2개가 있었다.

## 3. 행사 장소 및 기간

행사 일정은 행사 장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행사 장소가 학내인 경우 통상적으로 당일에 종료하고 있으며, 외부인 경우에는 숙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분리하여 개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본부는 학내에서 2~4시간 동안 실시하며, 학생회는 입학 전에 외부 장소를 대여하여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입

학식과 연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도 한다.<sup>5)</sup>

## 4.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은 행사 주체가 주로 결정한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경우에도 학생회 및 동아리가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학생회가 주관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체로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학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은 대체로 학교 생활 소개, 교수님의 인사, 학내·외 유명인사의 특강, 연예인 초청 공연이나 동아리 공연 및 참가 학생들의 장기 자랑을 포함한 친목 도모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회가 주도하는 일부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에는 '등록금 문제'와 같은 학내 문제, '남녀 고용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 Ⅲ. 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전화 인터뷰에 응답한 상당수의 대학이 현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만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만한 사항에 불과할 뿐이며, 각

4) 학생 당 소요 비용은 외부 장소의 임대 비용과 교통비에 의해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2박 3일을 기준으로 6~9만원이 소요된다.

5) 현재 입학식은 학기 시작일이나 시작 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그러나 입학식은 통상적으로 1~2시간 내에 종료되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빈약하여 입학 자녀와 함께 온 부모나 원격지에서 참가한 학생에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일부 대학에서는 형식적인 입학식을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입학식 종료 후 바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은 놓여진 환경과 대학 특성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1. 행사 주체 및 단위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교수는 물론 재학생도 참여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대학본부·교수와 학생회가 행사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학본부와 교수는 이 행사를 통해 '대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주입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아직도 학생회는 이 행사를 사회의 부조리와 기성 정치권의 비민주성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본부와 교수는 교육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교수의 참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교수가 참여하지 않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형식적·의례적인 행사로 전락하기 쉽다. 하지만 현재는 보직 교수들만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대다수이고, 설사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본부와 학생회는 각 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배정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회 간부 학생들만이 참여하는 부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은 일부 신입생에게 대학의 실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대학 환경에 대한 적응 실패로 인하여 재학 기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하며, 그 중

일부는 중도 자퇴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회가 주체하는 행사라고 할 지라도 대학본부와 교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집행에 대해서 관여하여야 한다.

모든 대학에 적합한 행사 단위는 없다. 만약 행사 단위를 작게 하면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수의 참여 시간이 많아지고 많은 교수가 참여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행사 단위를 전체 신입생으로 하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고급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 장소를 임차해서 하는 경우에도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과 단과대학별, 과별 오리엔테이션을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주체가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 소요 비용의 충당 방안

학내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외부에서 장소를 대여하여 숙박을 하면서 실시하는 행사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유료로 하되 내용이 알찬 행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교수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학교가 부담하고 숙박비 및 교통비는 학생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6)</sup>

## 3. 행사 장소 및 기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행사 장소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행사 장소는 강당 등 대학 교내 장소와 대규모 위락시설 단지 등 외부 장소를 고려할 수 있

6) 중앙대학교의 경우, 종전에 무료로 개방하던 각종 문화 행사를 가급적이면 유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도 봄학기에 실시한 음학회를 유료로 한 결과 보다 많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유료 행사를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다. 행사 장소를 학내로 한정하면 장소 임대 비용과 교통비가 별도로 들지 않아 행사를 매우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의 참석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수의 재학생 참여도 가능하다. 이외는 달리 숙박을 요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대학본부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면, 원격지에서 온 상당수의 신입생은 학교 근처에 숙박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sup>7)</sup>

행사 장소로 외부 장소를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적합한 장소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규모 대학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일시에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커다란 위락시설을 빌려야 하므로 수개월 전에 장소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회와 함께 행사를 기획하여야 하는 대학은 신입 학생회와 행사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조기에 시작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대학교는 몇 개의 단과대학을 한 단위로 묶어 동일 장소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의 집단 이동시 교통사고 예방 및 숙박 장소에서의 사고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가는 신입생을 태운 버스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숙박 장소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본부는 자체적으로 행하는 행사는 물론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일지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숙소 주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 4.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신입생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한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세대 대학 신입생은 정치·경제·사회적 현상과 결부된 무겁고 복잡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입생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각종 오락 행사가 적절히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참여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신입생이 공부해야만 하는 전공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전공을 선택한 양상은 크게 세 부류 즉, 1) 원하는 학과에 소신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 2) 자신의 성적과 적성을 함께 고려해서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 3) 적성과 무관하게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여 합격한 학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류의 학생이 세 번째 양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일 것이다. 특히 문과와 이과를 교차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더욱 학과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할 것이다. 전공 특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학과 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한다. 따라서 교수가 중심이 되어 공식적·비공식적 장소에서 신입생에게 전공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학생을 참여시켜 대학생의 시각에서 논의될 수

7) 학교에 통학이 가능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전에 학교 근처에 숙소를 정해야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입학식이 있기보다 훨씬 이전에 실시되면 숙박이 커다란 문제가 된다.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입생에게 대학의 교육이념과 방침을 이해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의 교육이념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학과의 교육이념과 비전 그리고 교육방침을 만들고 이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책자의 내용이 지나치게 피상적인 단어로만 채워져 있어 대부분의 교수는 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대학 교육이념과 방침은 '밤하늘의 별'에 비유될 수가 있다. 우리가 별을 잡을 수는 없지만 별빛을 따라 밤길을 갈 수는 있다. 대학의 교육이념과 방침을 자기의 대학 생활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는 신입생의 몫이다. 그러나 교수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교육이념과 방침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셋째, 신입생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의 획일적인 학습 과목 선정과 교육 방식에서는 신입생이 발휘할 수 없었던 다양한 능력이 있다. 미래의 사회는 다방면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래 사회에서 직업을 찾아야 하는 신입생은 사회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직장 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입생에게 학습 범위를 한정시켜 특정 분야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폭 넓은 공부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신입생에게 주어진 자율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임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한 자녀에게 부모들은 상당

한 자율권을 주고, 대학 교수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선생님보다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공부하게 한다. 이러한 자율적 환경은 더 많은 개인적 책임과 임무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의 공부 성과는 졸업 후 접하는 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도 짧은 기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상기 사항을 신입생이 완벽하게 인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신입생이 '대학과 내가 공부해야 할 전공에 대하여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은 최소한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나아가,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번 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신입생이 하게 되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나도 하면 될 수 있다'는 정신을 갖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해당 대학과 거리가 있는 유명 사회인사보다도 적게나마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선배를 모셔 특강을 듣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대학이나 학과에서 일어난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재학생이 신입생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IV. 결론 및 제언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 신입생은 대학에서 첫해를 잘 보내야 나머지 대학 생활도 잘 할 수 있다. 대학은 고등학교까지 획일적·타율적으로 생활해 온 대학 신입생이 제대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끔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고 사용하는 자금 정도의 비용을 신입생의 지도

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대학은 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필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많은 대학이 현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제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마땅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차선책인 현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행사 주체, 행사 장소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이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대학이 사용하는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대학만의 독특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좋은 오리엔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작은 대학과 큰 대학이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신입생의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대학본부로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신 학년을 시작하면서 행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아울러, 신입 학생회장단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협심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첫 번째 매듭을 제대로 풀어야, 나머지 행사도 협심하여 집행하기 수월하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성공 여부는 '교수의 관심'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만큼은 이의 중요성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본부는 교수가 능동적으로 신입

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전력해야 한다. **■**

#### 〈참고 문헌〉

- 박강희(1996). "대학 신입생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용철 외(1992). "효율적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대학생 생활 연구』 11호. pp.3~52.
- 유대근(1998).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방향". 『전문대학교육』 28.
- 임인숙(1998). "대학 신입생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연환(199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그 지도의 실제". 『경기교육』 11. pp. 97~105.
- 최병욱(199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의 문제점". 『대학교육』 55.

#### 이용규

중앙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FIU)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플로리다 주립 도시 및 환경문제연구소 연구원, 셋튼 홀(Seton Hall) 대학 정치학과 및 행정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로서 학생지원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외 다수가 있다.